

돌아오지 않는 그림



<문화예술>에서 문화예술방송국 MYB라는 가상 방송국을

임시 개국하고 <101분 토론>이라는 가상 프로그램도 개설

했다. 그리고 사회자로는 손석화 씨를 1일 계약으로 모셨다. 그런데 어디서 많이 들
어본 이름들이라고? 그렇다. 이 가상 프로그램은 한국의 대표적인 TV토론 프로그램
인 <100분 토론>, 냉철한 진행으로 최고의 사회자로 평가받는 손석화 씨를 패러디하
여 진행된다. 단, <100분 토론>이 각 방면의 뜨거운 감자를 논한다면, <101분 토론>
에서는 과거의, 그것도 예술 관련 주제만을 다룬다. 그래서 선정된 오늘의 주제는 ‘신
학철의 <모내기> 사건’이다. <모내기>는 민중미술가 신학철 씨가 1987년에 그린 그
림으로, 국가보안법에 위반돼 10년간 재판정을 전전하다가 결국 유죄를 선고받고 검
찰에 압수당했다. 그림 한 점을 둘러싸고 20여 년 동안 벌어진 논쟁을 대폭 압축하여
좌담의 자리로 옮겨보았다. 가상 토론이기는 하지만, 사회자를 제외한 등장인물의
발언 내용은 모두 당시의 공판조서, 법원 판결문, 그림감정서, 신문 등의 자료에서 거
의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특정인에 대한 폄하의 의도는 전혀 없음을 미리 밝혀둔다.

글 이해정 편집부



신학철, <모내기>(1987)의 재현작, 원작은 공안 당국 그어딘가에 소장.

사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B <101분 토론>의 진행자 손석화입니다. 지금
제 뒤 벽면에 걸려 있는 그림 보이십니까? 바로 민중미술가 신학철 씨의 <모내기>
라는 작품인데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1987년에 그려진 이 그림은 국가보안
법에 걸려 10년 동안 재판정을 전전하다가 결국 유죄 판결을 받아 현재 검찰에 의
해 압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작가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그림의 어떤 점이 문제가 되었던 것인
지, 그에 맞서는 입장은 무엇인지, 20여 년 동안 이 그림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공
방을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출연해주신 세 분의 토론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오
른편에 ‘<모내기>는 분명히 북한을 찬양하는 그림이다’라는 입장의 국보안 씨 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맞은편에는 ‘화가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줘야 한
다’는 입장의 표자유 씨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을 철저히 법에

입각해서 판단해주실 법대로 써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일반 방청객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본격적인 논쟁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20년 동안 있었던 많은 일을 101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소화하기 위해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럼 화면 보시고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레디~고!

scene#1

신학철 씨 클로즈업. “이 그림은 내 고향 경북 금릉을 그린 겁니다. 봄이면 파란 보리밭이 펼쳐지고, 집집마다 살구나무가 곱던, 그림 같은 마을이었지요. 신 씨와 김 씨가 반반쯤 섞여 살았는데 모두들 의가 좋아 법 없어도 큰소리 한 번 안 나고 살던 곳이었어요. 고향에 갔다가 집안 형님이 써레질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도 저렇게 시원하게 온갖 통일 방해하는 것들 싹 쓸어내고 함께 살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린 겁니다.” 신학철, 《민중미술》은 초연하다, 《art net》 vol.13, 1998.5-6

민중미술가인 신학철 씨는 1986년부터 구상하기 시작한 〈모내기〉를 1987년 8월에 완성한다. 이 그림을 민족미술협의회(이하 민미협) 주최 제2회 통일전에 출품한다. 전시 당시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등 전시작 4점이 경찰에게 압수되고, 작품을 출품했던 작가 한 명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됐다. 하지만 당시 신학철 씨의 〈모내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도 없었다.

scene#2

사건은 뒤늦게 시작된다. 그림 제작 1년 뒤, 신학철 씨는 유연복 민미협 사무국장으로부터 민미협에서 발행하는 달력에 〈모내기〉 그림을 신겼다는 부탁을 받아 이를 별생각 없이 승낙한다. 그후 이 달력을 본 인천 민주청년단체의 이상욱 씨가 부채를 만들면서 〈모내기〉 그림을 복사하여 새겨 넣었고, 그 부채를 배포하려다가 누군가의 신고에 의해 검찰에 구속된다. 이에 수사기관이 원작자인 신 씨를 수소문해 신 씨는 구속되고, 그림도 압수되기에 이른다.

scene#3

〈모내기〉는 10년 여 동안 재판받을 판다. 1심과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상고한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한다. 결국 결심공판에서 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진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하고,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한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법무부에 유죄판결을 보상하고 그림을 반환하라는 권고안을 보낸다.

scene#4

그 사이 민미협을 비롯한 여러 문화예술인들은 〈불온한 상상력〉전(1998), 〈금지된 상상력〉전(2004) 등 풍자 성격이 짙은 전시를 여는가 하면,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한다. 또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남자는 위, 여자는 아래〉라는 연극이 대학 연극계에서 공연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림은 여전히 검찰 창고에 압수된 상태이고, 검찰은 그림 열람 신청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회

네, 준비된 화면은 여기까지이고요. 그럼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방송은 지난 20년이라는 세월을 ‘지금, 여기’로 불러들여 진행됩니다. 따라서 토론자분들은 예전에 하셨던 말 그대로가 아니면 방송에서 자동으로 묵음처리됩니다. 단, 표기법이나 문장부호, 어투를 조금 바꾸는 정도는 허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점 유의해주시고요. 그럼 먼저 국보안 씨께 여쭙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보안

신학철 씨는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제작하고, [...]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위 〈모내기〉 그림을 출품하여 [...] 불특정 다수인으로 하여금 관람케 하여서 반국가단체인 북한공산집단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위 표현물을 반포한 것입니다. 검사 황인규,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 1992.11.12

사회

알겠습니다. 우선 표자유 씨의 입장도 들어보고, 더 자세히 토론해보겠습니다.

표자유

순수한 미술작품활동에 대하여 북한을 이롭게 하였다고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 사건은 작품을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국보안 씨는 단편적으로 해석했습니다. 변호사 박원순, 《서울형사지방법원 공판조서》, 1992.10.13

신학철 씨의 〈모내기〉 작품은 단순히 통일을 주제로 한 그림일 뿐이 아닌, 내용과 형식의 풍요로운 결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며 민족미술의 한 이정표가 되는 걸작으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미술작품을 평가하는 주체는 미술비평가, 미술사가를 비롯한 전문미술인들과 일반 관객대중들이 되어야지 정치권력이나 행정관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 일찍이 나치 하에서 ‘퇴폐미술’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한 미술작품들이 불태워지고 작가들이 국외로 추방되었던 일은 지금에 이르러서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로 남아 있으며, 역사는 그 미술작품들을 미술사상 가장 우수한 작품들 중의 하나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어떤 미술작품이 반사회적인 독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미술계나 일반 국민들의 상식의 눈으로 비판되고 추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성완경, 《피고측 그림 감정서》, 1990.10.16

사회

잘 알겠습니다. 그럼 그림을 한 번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국보안 씨는 그림의 어

국보안

떤 부분이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한다고 보신 겁니까?

이 그림은 상단은 북한지역을, 하단은 남한지역을 형상하여 크게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구획하고 있습니다. 그림 좌측 상단의 ‘초가집’은 김일성의 생가인 [...] 소위 ‘만경대 고향집’을 묘사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만경대를 일컬어 ‘혁명의 요람’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 북한에서 현재 꽃밭 속에 묻혀 있는 초가집은 혁명의 요람 ‘만경대 초가집’을 상징하며 더욱이 그림과 같이 호수까지 갖춘 초가집은 남북한을 통틀어 보아도 모종의 상징물로서의 ‘초가집’이 분명합니다.



북한 농민들의 행복상을 묘사함에 반해 남한 농민들은 [...]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남한혁명의 타도 대상인 미일제국주의자들과 군사파쇼정권, 지주, 매판자본가, 반동관료배 등을 쓸어버림으로써만 민중해방이 이루어져 북한과 같이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바, 결국 북한의 주장과 활동을 고무 찬양하고 그에 동조하여 농민 등 일반대중을 자극, 계급적으로 각성시켜 반제 반미 투쟁과 반정부투쟁에 궤기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이적 목적의 선전 선동화로 분석 평가됩니다. [홍중수, <검찰측 감정서>, 1990.9.21](#)

표자유

화면 전체를 아래 위로 연속된 한반도 지도로 간주하여 위쪽의 백두산을 배경으로 한 행복한 농촌 풍경을 북한이라 보고 써레질로 쓰레기를 밀어내고 있는 아래쪽을 남한이라고 본다는 것은 화면 공간의 특질이나 그 구성원리의 기본적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원경, <피고측 그림 감정서>, 1990.10.16](#)

신학철 씨는 분단현실의 극복과 통일 후의 평화로운 삶의 이상이라는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통일의 장애요소의 현재성을 크고 앞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 그림 하단부에 그리고, 시간적으로 나중이 되는 통일 후 이상향의 미래를 그림 상단부에 배치하면서 통일의 시간적인 발전관계를 상하의 대비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 이와 같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루어진 작가의 미술활동 연장선상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조용환, 김기중, <변론요지서>, 1999.7.9](#)

사회

시청자분들을 위해 제가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국보안 씨는 이 그림이 한반도 공간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림의 하단과 상단은 각각 남한과 북한을 나타낸다 라는 입장이고요. 반면, 표자유 씨는 이 그림이 통일의 시간적 단계를 나타낸다, 즉 하단에서 상단까지는 현재부터 미래까지의 통일 발전단계를 모내기 과정에 비유하여 표현한 것이다 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국보안

그렇습니다. 우선, 지도나 지형을 그릴 경우 상향이 북(N)이고 하향을 남(S)으로 표시하지요. 또한 우리나라 북단에 백두산이 있음으로 백두산 아래쪽 상단에 그려진 그림은 북한의 농민들과 어린이들을 형상한 그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

표자유

하단은 한반도의 하단에 그려져 있고, 미국인, 일본인, 양담배, 코카콜라 기타 그림들로 보아 남한지역을 형상한 그림인 것이고요. [홍중수, <검찰측 그림 감정서>, 1990.9.21](#)



화면의 아래쪽과 위쪽은 동일공간의 아래와 위 또는 남과 북이 아니라 시간의 선후를 한 공간에 병렬 표현한 것입니다. 그림에도 화면의 오른쪽 위편에 백두산을 그렸으니까 그 왼쪽 편으로 약간 아래쪽에 그려진 농촌 마을이 김일성의 생가인 만경대라고 하는 주장이나 전면의 농부가 내몰아내고 있는 쓰레기가 남해바다로 쓸어 넣어지고 있다는 주장은, 그래서 북한을 찬양하고 남조선의 적화 통일은 은연 중 상징한다는 주장은 그 비유감각의 탁월함은 기발한 것일지는 몰라도 이 작품의 공간이해에는 장남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농부는 이 쓰레기들을 어느 방향으로 쓸어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이 질문이 의미 있는 것이라 가정할 때 그 올바른 답은 그림의 ‘아래’나 ‘남쪽’이 아니라 그림의 ‘앞쪽’ 즉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들 쪽으로, 더 올바르게 얘기해서 그림의 ‘바깥쪽’으로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그림의 안쪽이라는 것의 의미가 더 정확해지고 그 내용 또한 풍부해짐을 즉각 알게 됩니다. [성원경, <피고측 그림 감정서>, 1990.10.16](#)

사회

네, 잘 알겠습니다.

표자유

조금만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을 다음과 같이 그리는 경우를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작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상징물들을 ‘북쪽’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추수 후의 평화로운 모습과 아이들이 뛰노는 농촌광경을 그림의 아래쪽, 즉 ‘남한’에 배치합니다. 그렇다면, 국보안 씨는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경우 그림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먼저, 이 그림의 가장 중요한 주제인 ‘써레질과 모내기를 하는 농민들’은 뒷모습으로 그려야 할 것입니다. ‘북쪽’으로 그것들을 내몰아야 하니까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 바람직하지 않은 상징물들을 그림 바깥, 즉 한반도라는 생활공간 외부로 내보내되, 그것을 북쪽을 향하여 나가게 하려면 그림 위쪽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 이렇게 그린다면, 국보안 씨의 심기를 편안하게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미 미술작품이 아닐 것입니다. 어떠한 예술적 감흥도 줄 수 없는 괴상한, 쓰레기 같은 그림이 될 것입니다. 권력이 그림을 함부로 재단하게 되고 작가가 그것을 눈치보기 시작하면 결국 ‘예술’이 말라죽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용환, 김기중, <변론요지서>, 1999.7.9](#)

사회

네, 알겠습니다. 작가가 이 그림을 통해 표현하려는 주제는 이런 구도로 그리지 않으면 도저히 표현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쯤에서 법대로 씨의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법에 입각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법대로

그림의 이적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석방법을 기초

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무릇 어떤 사상의 표현물이 이적표현물인가의 여부는 [...] 그 시대 상황에 있어서의 사회일반인이 갖는 건전한 상식과 보편적 정서에 기초하여 그림을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둘째로, 사상이나 이념의 표현수단 중 예술적인 언어는 일상언어와는 달리 매우 주관적이고 복잡적, 다의적이며 추상도가 높은 언어인데다가 특히 회화의 경우에는 그 상징성이 강하기 때문에 어떤 미술품이 실정법 위반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획일적, 일의적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매우 신중하고 섬세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 것이며, 셋째로, 예술적 창작물인 회화는 그것을 이루는 각개의 구성부분 자체가 각각 독립하여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 각개의 구성부분은 작품의 전체적인 구도와 구성, 색채의 조화 등을 통하여 작가가 작품을 통하여 나타내려는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기여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어서 [...] 어떤 특정부분을 전체 그림에서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이적성을 띠는 것인가 여부를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 넷째로, 우리 헌법은 제22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예술, 창작의 자유를 기본권의 하나로서 보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예술의 자유는 사상표현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사상표현을 토대로 유지발전해 나가는 자유민주주의의 근본가치의 하나를 이룰 뿐 아니라 문화적 창조를 장려하여 문화창달 및 문화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라 할 것이어서 가능한 한 넓게 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이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에 그쳐야 할 것이어서 그 제한 법규는 가능한 한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판사 석호철,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 1992.11.12

사회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내기>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국보안 씨께서 이에 대해 반론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보안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부당합니다. 첫째 법대로 씨는 회화물의 해석기준으로 써 네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는 너무나 타당하고 보편적인 기준임에도 스스로 위 기준을 어겨서 본건 그림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보편적인 관람자들이 본건 그림을 보고 느끼는 일반적인 정서에 의해 [...] 그림의 이적성이 판단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1992년 11월의 시각에서 이 그림을 해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급변하는 남북관계 및 이에 따른 운동권의 세계에서 이 그림이 그려진 1986-1987년과 1992년의 시대 정서는 엄청나게 다를 것입니다. [...] 더욱이 본건 그림을 이용하여 부채를 만든 이상욱은 당시 이성진과 부채에 이용할 그림에 대해 의논하면서 그림이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고 생각하여 다른 것으로 하자고 하였다가 이성진의 주장에 밀려 그대로 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일반적인 사람이면 누구나 [...] 북한의 주장을 연상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둘째로, [...] 북한의 폐쇄된 정책, 50여 년을 이어온 공산주의의

일당 독재 및 김일성 일인 독재체제, 끊임없이 계속되어온 북한의 대남 적화 야욕, 끊임없는 대남 선전선동 및 비난으로 야기된 불신 풍조 등 사실상의 통일 저해 세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미일 제국주의와 군사 독재정권이 통일의 저해 세력이라는 신학철 씨의 주장 및 그 표현으로서 미국사람, 전두환 대통령 등을 그린 그림과 앞에서 본 북한의 주장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셋째, [...] 전체의 이미지로 그림을 파악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주장에 의하면 당연히 남북한의 대비로 보이는 것이 상식적이며 [...] 위 그림이 북한의 주장을 답습, 동조하고 있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 북한이 주장하는 NLPD론과 연방제 통일론에 그대로 일치한다고 하겠습니까. 검사 조현순, <함소이유서>, 1993.11.19



법대로

아니요. 조금 전의 제 판단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습니다. 또한 국보안 씨가 [...] 증거로서 기록검증 결과 중 일부로 제출한 이상욱의 자술서의 기재와 [...] 이상욱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에 관하여 보면, 이상욱은 [...] 다시 그 원심 법정에서 “그림의 상하단 모두는 남한 농촌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하고 진술하고, “검사의 묻는 말에 그렇게 말한 사실은 있으나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며, 저로 인하여 선배인 김영제가 연루되어 왔는데 그 선배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아 말을 잘하면 기소유예로 나올 수 있다고 시인하라고 하여 시인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앞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이상 이를 [...]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습니다. 판사 김영기, 권오창, 최철환, <서울형사지방법원 판결문>, 1994.11.16

국보안

법대로 씨는 구 국가보안법 제7조가 국가의 존립,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이라 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본 규정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등 [...] 법리를 오해하였고, [...] 증거가 충분함에도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배척하고 신학철 씨의 진술 및 표자유 씨의 감정결과만을 취하는 등 채증법칙을 위배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르고 있군요! 검사 정진규, <상고이유서>, 1995.1.11

법대로

음... 계속 듣고 보니 제가 실수한 것 같군요.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제작의 동기는 물론 표현 행위 자체의 태양 및 외부와의 관련사항,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겠죠. 대법관 송진호,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대법원 판결문>, 1998.3.13

사회

아, 법대로 씨 지금 입장을 바꾸시는 건가요?

법대로

네. 신학철 씨는 실제로 민미협 주최의 제2회 통일전에 출품하였고, 그후 [...] 민미협 발행의 1989년도 달력에 게재한 사실, 민미협은 민족미술운동 또는 민중미술운동을 추구하고 있는 바 [...] 민중미술은 순수미술이 아니라 이른바 민족 과제에 복무하는 미술로서 민중들의 통일의지를 심어주고 민중의 민족해방의지

를 구체화한 작품을 창작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사실, 위 그림의 제작당시인 1986, 1987년경에는 소위 운동권에서 주체사상이 널리 확산되면서 북한의 주장을 좇은 남한혁명이론으로서의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혁명론(NLPDR)이 득세하였는데 [...] 그림 상단부는 북한을 그린 것으로서 통일에 저해되는 요소가 전혀 없이 전체적으로 평화롭고 풍요로운 광경으로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북한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그림 하단부는 남한을 그린 것으로서 미일 제국주의와 독재권력, 매판자본 등 통일에 저해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며, 농민으로 상징되는 민중 등 피지배계급이 이들을 강제로 썰레질하듯이 몰아내면 38선을 삼으로 건듯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된다는 내용을 그린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피지배계급이 파쇼독재정권과 매판자본가 등 지배계급을 타도하는 민중민주주의혁명을 일으켜 연방제통일을 실현한다는 북한 공산집단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의 활동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로서 구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소정의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관 송진훈, 천경승, 지창권, 신성택, <대법원 판결문>, 1998.3.13

표자유

법대로 씨의 주장은 전혀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반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대로 씨가 이 그림을 비난하면서 그 근거로 열거하고 있는 ‘외래저질 퇴폐문화와 미일 외세, 군사독재정권, 지주 등 자본가 계급’ 등에 대하여 신학철 씨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평화로운 ‘농사행위’를 상징으로 하여 그러한 현상을 극복하자는 메시지를 표현하려 했다면, 그래서 무엇이 잘못된 일인가 하는 점입니다. 매우 막연하게 이 그림을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어려운데, 예컨대, 대한민국에는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요소들이 전혀 없는데 있는 것처럼 표현해서 잘못이라는 것인지, 그런 요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좋고 보존해야 하는 것인데 나쁘게 표현해서 잘못이라는 것인지, 나쁘기는 하지만 나쁘다는 것을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지, 나쁘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농사행위를 통하여 극복하자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다고 한들, 그것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길인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해명하지 않으면 결국 법대로 씨의 판결은 “네 죄는 네가 알렸다”는 식과 조금도 다름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법대로 씨의 판단은 국보안 씨가 내세운 이 사건 그림에 대한 감정인 홍종수의 의견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홍종수의 감정의견이 과연 이 그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홍종수 씨의 감정의견이 한국의

미술평론계에서 합리성을 가진 것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면, 법대로 씨의 판단은 그 입론의 근거 자체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단계의 논리적 판단으로 나아갈 필요도 없이 이 사건 그림에 대하여 이적표현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조용환, 김기중, <변론요지서>, 1999.7.9

사회

오늘은 특히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이쯤에서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전화연결을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이 그림의 주인공이신 신학철 씨를 연결하고, 그 다음 국보안 씨에게 그림 감정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준 홍종수 씨를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국보안 씨는 신학철 씨에게, 표자유 씨는 홍종수 씨에게 질문하실 기회를 각각 5분간 드리겠습니다. 신학철 씨, 지금 나와 계신가요?

신학철

예, 안녕하세요.

사회

오늘 토론 쭉 지켜보셨습니까?

신학철

예, 잘 들었습니다.

사회

그럼 국보안 씨 질문하시죠.

국보안

이하 제9차공판 방청기중, 1998.12.2 몇 가지 먼저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사진들을 모으니까?

신학철

예, 나는 그림을 그리기 전, 필요한 사진 자료를 내 시야에 들어오는 한 많이 수집합니다. 예를 들면, 역사의 한 현장을 그리기 위해서는 당시의 상징성 있는 사진자료들을 참고할 필요가 있죠.

국보안

나도 그림 자~알 그림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그림을 유화로 그림니까?

신학철

예, 유화로 그림니다.

국보안

무슨 물감입니까? ‘신한’ 물감입니까? 물감이 많이 들겠네요?

신학철

뭘 묻고자 하는 겁니까?

국보안

.....

자료들을 그림에서 어떻게 나열하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이 탱크들을 그냥 그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림이지만 여기 있는 것처럼 독일과 소련의 전쟁에서 사용되었던 독일의 탱크가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을 그렸다면 그 그림은 소련에 유리한 그림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신학철

그 반대일 수도 있죠.

국보안

..... 이상 제9차공판 방청기중

사회

국보안 씨 질문 안 하실 건가요?

국보안

이하 제2회 공판조서 중, 1990.6.14 그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신학철

성묘길에서 썰레질을 하던 모습을 보고 이에 착안하여 통일의 염원을 모심는 과정에서부터 추수까지의 과정에서 재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모내기 전에 정지 작업을 하듯이 반통일 세력에 대해 정지 작업을 해야함을 표현하였고, 모내

기, 추수를 통하여 행복해지는 모습을 묘사하여 추수 후에 법 없이 사는 농촌의 모습을 재현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상 제2회 공판조서 중](#)

국보안

[이하 제1회 공판조서 중, 1990.5.17](#) 그림 왼쪽 하단에 있는 허수아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신학철

귀신, 나쁜 미신 같은 것, 잡스러운 것 등 좋지 않은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국보안

소위 통일지향세력이 반통일세력을 마치 모내기 하기 전 씨레질을 하듯이 황소발로 짓밟고 씨레로 뒤집어 엎어 밀어내면서 남해바닷속으로 쓸어버려야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요?

신학철

아닙니다. 그리고 아래쪽 물은 남해바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입니다.

국보안

이 그림에 의할 때 통일지향세력은 농민으로 대표시킨 농민, 노동자, 빈민 등 소위 제국주의에 종속된 신 식민지하에서 수탈당하고 있는 피지배계급들이고, 반통일세력은 레이건, 나까소네, 코카콜라, 핵무기, 일본 기생, 이터, 람보 등으로 표현된 미일제국주의자들과 전두환 전 대통령, 탱크 등으로 표현된 제국주의의 앞잡이로서 인민을 수탈하고 있는 군사파쇼정권, 핑귄표주스 깡통, 황소발 아래 짓밟히면서 “내돈” 하고 외치는 사람 등으로 표현된 자본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학철

아닙니다, 통일지향세력은 이 그림에서 밀려난 사람들 이의를 말하는 것이며 “내돈”하고 외치는 사람 등으로 표현된 것은 자본가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국보안

이는 결국 북한의 민족 해방 인민 민주주의 혁명 노선과 통일전선 전술의 내용과 일치하는 내용인데 신학철 씨도 잘 알고 있나요?

신학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보안

이 그림 중에 북한에 관한 것은 없나요?

신학철

백두산 이외에는 없습니다.

사회

국보안 씨 이쯤에서 정리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하세요.

국보안

상단 부분이 결코 북한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 주장을 진실한 것이라 인정한다면 결국 신학철 씨는 북한은 현재의 상태가 최선이기 때문에 현 상태 그대로 두어도 남한의 혁명만 이루어지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사회가 건설된다는 의미로 그림을 그린 것인가요?

신학철

북한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고 통일지향적인 것을 나타낸 것이며 이 그림의 주제는 보는 사람들이 통일이 좋다는 열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린 것입니다. [이상 제1회 공판조서 중](#)

사회

신학철 씨 통화 감사드립니다. 이제 전화 끊으셔도 됩니다. 홍종수 씨 바로 연결되

나요? 여보세요, 홍종수 씨?

홍종수

예, 안녕하세요.

사회

아 연결됐군요. 표자유 씨 질문해주세요.

표자유

[이하 제9차공판 방청기 중, 1998.12.12](#) 홍종수 씨는 <모내기> 그림에 대한 검찰측 감정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홍종수

예.

표자유

당시 서울 대공전술연구소 전문위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 산하의 기관입니까?

홍종수

경찰청... 아니 서울시... 아니 경찰청 산하...

표자유

서울시 산하기관이라는 말입니까? 경찰청 산하기관이라는 말입니까?

홍종수

서울시 산하인데 경찰청에 협조도 하고...

표자유

이 기관의 임무는 뭡니까?

홍종수

반공, 경찰 교양지 발간, 유인물 분석 감정 등입니다.

표자유

이 기관의 전문위원으로 있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홍종수

그걸 꼭 대답해야 합니까?

표자유

예, 대답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젠입니다.

홍종수

특별히 한 일은 없습니다.

표자유

어떤 대학 출신이고, 무얼 전공했습니까? 미술, 음악, 법학 등을 전공한 적이 있습니까?

홍종수

평양사범대학 출신입니다. 교육학을 전공했고, 미술, 음악 등 모든 과목을 배우며 그 대학은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미술교사를 했습니다.

표자유

어떤 계기로 남한에 오게 되었습니까?

홍종수

..... 그런 것까지 대답해야 합니까?

사회

홍종수 씨, 그런 것은 대답 안 해도 됩니다. 표자유 씨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하시고 정리해주세요.

표자유

논문집이나 연구서 등을 낸 적이 있습니까?

홍종수

북한에 있을 때 논문집, 연구서 등을 백 권 정도 낸 적이 있습니다.

표자유

어떤 논문집이었습니까? 미술 관련 내용이었습니까?

홍종수

미술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주로 핵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상 제9차공판 방청기 중](#)

사회

알겠습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해주실 것입니다. 홍종수 씨, 이제 전화 끊어주셔도 좋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전화 의견 및 인터넷 의견을 잠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의견이 들어왔는데요. 물론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다섯 분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의견 주신 분들은 몇 분을 제외하고 대체로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판결은 잘못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먼저 인터넷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김낙중이라는 분이 <신학철에게 고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말도 되지 않

는 변론으로 무죄는 선고되고 태양을 보게된 줄 알지만 네 진심은 북한을 찬양하려는 동기가 분명하였으므로 우리들은 그대에게 ‘사형’을 언도한다.”라며 “너뿐 아니라 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저승길로 보내주겠다. 우리는 communist killer.” 김낙중, *신학철 씨에게 도착한 편지*, 1992.11.12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아까 법대로 씨가 입장을 바꾸기 전에 써주신 모양입니다. 그리고 시각예술평론가 류제홍 씨가 의견 주셨습니다. “‘사회의 평균인들’, ‘사회 평균적인 시각을 가진’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본건 그림에 대해 누구나 그 이적성을 느끼고 있다’는 국보안의 주장은 과연 ‘누구’의 ‘시각’인가? 당연히 ‘분할 지배’를 실행하는 검찰과 법원의 일부일 것이다. [...] 압수된 <모내기> 원화를 둘둘 말아 반을 똑 꺾어 보관하는 자들 말이다.” 류제홍, <‘모내기’, 쓰레기, 레드헌팅>, <문화과학>, 1998.5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어서 전화 의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전화 주셨는데요. “<모내기> 그림에 대한 유죄 판결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9조에 규정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라면서, “한국 정부는 신씨의 그림을 돌려주라”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 2004.4.18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밖에도 “원경에 그려진 초가집을 김일성 생가라고 말하는 것은 ‘탁월한 안보적 상상력’에 기초해 ‘이적 표현물’이라는 괴물을 찾아내려는 억지일 뿐” 민미협, <민예총 ‘신학철씨 석방 촉구’ 성명>, <한겨레>, 1989.8.20이라는 의견, “한 작가의 혼과 땀이 서린 예술작품을 압수하고, 습기 찬 증거품 보관소에 둘둘 말아 접어서 내팽개쳐 둠으로써 ‘미필적 고의에 의한 작품훼손’을 저지르고도 뻔뻔히 작품 열람마저 거부하는 국가 공권력 앞에서 우리 예술인은 무엇을 꿈꾸며 무엇을 그릴 수 있는가.” 유엔권고안 수용을 위한 신학철 <모내기> 문화예술인 비상대책위원회, <금지된 상상력>전 팸플릿, 2004.5.20이라는 의견 등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토론자분들의 최후발언은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보시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많은 판단을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아까 신학철 씨가 전화 끊기 전에 제작진에게 메모를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말을 전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자식 같은 그림을 15년 동안 생이별한 사실 자체가 야만적이지 않은가요. 이제 국가보안법 폐지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는 만큼 정부의 과감한 선처를 기대합니다. [...] 보상은 바라지도 않고, 작품 돌려받는 게 소원입니다. 작품을 폐기해 국제적으로 나라가 창피당하는 일은 제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 꼭 좀 전해주세요.” 신학철, <그림 빼앗긴 지 15년 당장 돌려줘야>, <한겨레>, 2004.5.3

출연

국보안	검사 황인규, 조현순, 정진규, 채정석, 서울 대공전술연구소장 홍종수
표자유	변호사 박원순, 조용환, 김기중, 최병모, 미술평론가 성완경
법대로	1심 판사 석호철, 2심 판사 김영기, 권오창, 최철환, 대법관 송진훈,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
신학철	민중미술가 신학철
홍종수	서울 대공전술연구소
손석화	편집부 이해정

<모내기> 사건 일지

1987.8	민미협 주최 제2회 통일전에 출품 전시
1989.8.17	국가보안법 적용 인신 구속 및 작품 압수
1989.9	민미협 1989년도 달력 <모내기> 수록 압수
1989.11.15	보석으로 석방
1992.11.12	1심 무죄 선고(서울지법 단독)
1994.11.16	2심 무죄 선고(서울지법 합의부)
1998.3.13	검찰 상고- 검찰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환송(대법원)
1998.4.29-5.5	<불온한 상상력>전, 21세기 화랑
1999.8.13	결심공판-징역 10월에 선고유예 판결
2000.5.4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소
2000.5.29	유엔 인권이사회 답변서 도착. <모내기>건에 대한 심리를 3년 내에 열 것이며 작품을 폐기하지 말 것을 한국정부에 요청하고, 이에 대해 한국정부가 6개월 이내에 답변을 해줄 것을 요청함
2000.8.15	사면법 제5조 규정 대통령 명령에 의한 사면복권
2004.4.18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 법무부 도착. 1. 유죄판결에 대한 보상, 2. 유죄판결의 무효화, 3. 법정비용 보상, 4. 그림의 원상 복구 및 반환
2004.4.22	미술가 신학철의 <모내기>에 대한 유엔 인권이사회 유죄판결 취소 결정에 따른 문화예술인 성명서
2004.5.7	검찰의 모내기 그림 열람 불허에 대한 항의 성명서
2004.5.10-15	유엔 인권이사회 권고안 수용과 <모내기> 그림 열람을 촉구하는 서울지방검찰청 앞 1인 시위
2004.5.11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2004.5.20-24	<금지된 상상력>전

신학철

한국의 대표적인 민중미술가. 1943년 경상북도 금릉에서 태어나, 홍익대에서 서양화를 공부했다. 1960년대의 그룹인 AG(아방가르드 협회)를 통하여 다양한 실험미술을 시도하였고, 1970년대에는 사진몽타주나 콜라주를 이용하여 일상의 현실을 보여주고 산업사회와 대량소비사회가 가져오는 물신성을 형상화하는 작업들을 제작했다. 1980년대 이후에는 현실에 보다 더 가까이 접근한다. 근현대사를 특유의 해석으로 포착한 일련의 <한국현대사>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화단에 파장을 일으켰고, 1982년 첫 개인전은 평단과 저널리즘으로부터도 각별한 주목을 받아 평론가들에 의해 전년도 가장 주목할 만한 작가들 중 한 사람으로 선정됐다. '제1회 미술기자상'을 수상했고, <공간>지가 발표한 80년대 전반기의 주목할 만한 작가 28인(1986), <월간 미술>이 80년대를 마감하면서 기획한 '평론가 15인이 선정한 80년대 한국미술의 대표작가'(1989) 등에 선정된 바 있다.